

“고향 땅 진달래 다시 보는 날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광주 남구 ‘철원DMZ행 통일효도열차’

실향민 등 300여명 백마고지 전적지·전망대 등 방문
유치원생 등 3대가 함께 탑승도...“분단 국가 아픔 여실”

“이맘때쯤 고향엔 진달래가 활짝 폈는데…….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9일 오후 2시15분께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 김찬영(90)씨는 망원경을 통해 북녘땅을 바라보며 붉은 눈시울로 이같이 말했다.

1961년 군인 신분으로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김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혀 15년을 복역한 후 귀국했다. 바닷가랑이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울던 3살 딸아이의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하다는 김씨는 밭지 못하는 고향 땅을 눈으로라도 보기 위해 이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철원DMZ행 통일효도열차’에 탔다.

통일효도열차는 광주 남구가 지난 2022년부터 북한에서 온 실향민들의 향수를 조금이나마 달래고 지역민의 평화통

일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종착역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동두천시 동두천역으로 가는 코스가 추가돼 대한민국 최북단으로 꼽히는 강원도 철원군 일대 분단지역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이날 김씨와 함께 통일효도열차에 탑승한 참석자 등 300여명은 축하공연과 역사강의, VR 체험 등을 하며 첫 번째 목적지인 백마고지 전적지로 향했다.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참석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분단의 역사를 배웠다. 또 이곳을 모티브로 한 영화 ‘고지전’ 속 치열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산화한 국군 장병들을 향해 헌화와 묵념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후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어 평화전망대에 올라 북한땅을 바라본 참석자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 김찬영(90)씨가 비무장지대(DMZ)와 북녘땅을 바라보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낯선 땅’으로 여겨지는 일반 시민들은 선 하나를 두고 한 민족이 두 국가에

서 늘 긴장을 유지한 채 사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그리운 고향인 실향민은 눈에 보여도 밟을 내디딜 수 없는 현실에

작잡함을 드러냈다. 3대가 함께 통일효도열차 행사에 참여했다는 정효영(44·여)씨는 “유치원

생 딸아이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싶어 참가했다”며 “함께 온 실향민을 보니 분단 국가의 아픔이 여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통일효도열차를 탔는데, 고향 땅을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죽기 전 통일이 되면 고향 땅에서 봄에 만개하는 진달래 꽃과 딸아이를 다시 한 번 보고 싶다”고 소원했다.

전망대 관람 이후 참석자들은 월정리역으로 이동,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부서진 북한역사를 구경한 뒤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소원하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천천히 준비하면 반드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통일효도열차를 통해 한민족의 북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통일효도열차 행사는 하반기에 2차례 더 추진되며 회차별로 300여명을 모집한다. /주성학 기자

폭행·난동으로 ‘강등’ 현직경찰 취소소송 기각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워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9일 목표경찰서 소속 A 경찰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찰은 지난해 1월23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을 피우려 차를 돌리다 차가 도로를 이탈해 옆길로 튕겨 나간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당시는 전국에서 경찰관들의 음주비위가 잇달아 공직기강 확립지사와 교육이반복되는 시기가었다.

전남경찰은 A 경찰의 행위가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등 징계를 내렸다. 부당함을 주장한 A

경찰은 이번 소송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계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적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찰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기준상으로도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며 “충분히 강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尹, 과거사 ‘걸림돌’ 발언 역사 포기”

日피해자 지원 단체들 비판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 중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단체)은 성명

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허탈해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는데, 단체는 이를 두고 “화답 없는 구애”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지난 2년간 윤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 저자세 퍼주기 외교로 국민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레’를 이유로 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괴’를 팔며 ‘역사’를 포기했다. 이에 대한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정은정 기자

‘아동 익사사고’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수영장에서 아동이 익사한 사고에 대해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이 안전관리 팀장으로 있는 여수시 한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4세 아동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동은 사고 당시 보호자와 잠시 떨어진 틈에 구명조끼를 벗은 채 수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익사 사고 예방 조치

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익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안재영 기자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하라”

오월정신 대책위, 여론 수렴 기간 보장 등 촉구

오월정신치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에 종합보고서 초안 신속 공개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 조사보고서의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종합보고서 초안은 전원위원회에

이제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왜곡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종합보고서 초안 부실·왜곡으로 내모는 길을 가고 있는 5·18조사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5·18조사위는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 제기한 개별 조사보고서 부실·왜곡 지적에 대해 사과하며 수정을 약속했다. 약속 이행 여부는 종합보고서 초안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다음 달 31일

활동 종료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공개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대책위는 “국가가 최초로 작성한 보고서까지 왜곡으로 점철된다면 5·18에 대한 폄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합보고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개별 조사보고서의 왜곡 사실을 낱낱이 탄핵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는 충분한 심의와 광주·전남공동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5·18조사위에 초안 신속 공개 및 여론 수렴 기간 보장을 재차 촉구했다. /주성학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기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